

동남아시아의 마조 신앙, 그 기원과 전파 양상*

양 은 경**

요약

동남아시아 화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공동체로서 결속력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한 마조 신앙은 화인들의 기층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마조사당과 회관 건물은 중국, 특히 복건·광둥지역 건축구조와 양식에 기초하나, 동남아시아 각국의 건축기법과 양식도 부분적으로 가미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당에 봉안된 신상 역시 마조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신봉되었던 신들도 함께 모셔진 사례가 많다. 이를 통해 판단하면 동남아시아의 마조 신앙은 각국의 종교·민간신앙과 서로 융합하면서 현지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의 물질문화는 복건·광둥지역과 서로 유사성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곳 화인들의 출신지가 복건·광둥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서로 일치한다. 동남아시아의 마조 신앙은 명청대 복건·광둥인들이 동남아시아로 대규모 이주하는 과정을 통해 파생된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 마조 신앙은 향해 안전신으로 숭배된 데 비해 동남아시아에서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변화·발전된 양상으로 확인된다.

주제어: 마조, 동남아시아, 중국, 화인, 해양, 실크로드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 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yeg@pusan.ac.kr

I. 머리말

마조는 송대 복건 미주도에서 실존한 인물로 그녀는 생존 당시 각종 신이한 행적을 남겼으며 사후에는 해상 보호신으로 신격화되었다. 처음에는 복건지역 일반 민중들이 마조를 숭배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로부터 “천비”, “천후” 등 존호도 부여받았고 마조신상을 모신 사당들도 많이 건립되게 되었다. 마조 신앙은 불교, 도교 등 기타 다른 종교 혹은 민간신앙까지도 포용하는 기층민의 독특한 신앙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마조 신앙은 중국 고대 항해자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항해자의 족적을 따라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 나가게 된 사실은 중요하다.

오늘날 마조 신앙은 중국,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동남아시아 화인들은 마조의 탄생일인 3월 23일이 되면 복건성 미주도(湄州島)의 미주조묘(湄州祖廟)를 직접 방문하여 참배하는 등 마조에 대한 열렬한 신앙심을 드러내고 있다.¹⁾ 중국 연해지역과 동남아시아에는 중국인들이 재물신으로 섬기는 관제묘(關帝廟) 이외에 마조묘(媽祖廟)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남아시아에 건립된 마조사당 혹은 회관을 포함한 마조 신앙의 양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또한 이러한 궁금증과 함께 마조는 동남아시아 화인들만이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현지인들도 숭배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동남아시아 화인들은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 현지 역사, 문화와 서로 결합하면서 살아갔다. 그렇다면 그들이 신봉한 마조 신앙 역시 동남아시아 각국의 종교, 신앙과 융합하게

1)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혈통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화교(華僑)와 화인(華人)이 있다. 좁은 개념으로 구별하자면 화교는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이며, 화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개념으로는 화교와 화인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혈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화교보다는 화인을 많이 사용하는 실정이므로 본문에서도 “화인”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되었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였는지 궁금하다.

만약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이 현지 종교와 서로 융합하여 현지화가 진행되었다면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은 중국의 마조 신앙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특징도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간파된다면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에 대해 고찰한 후 마조 신앙의 기원이 되는 중국의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국과는 다른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마조 신앙과 관련된 동남아시아 문화유적과 문화행사는 화인과 연관된 역사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제적인 이익까지 창출하고 있는 중요한 존재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화인들의 기층문화를 이해하고 동남아시아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마조 신앙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조 신앙에 대해 국내에서는 그리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는 아니지만, 해외연구는 활발히 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마조 자체에 대한 연구로는 마조 일대기와 전설(Watson 1985; 李獻璋 1995), 마조 신앙과 불교·유교·도교·민간 신앙(Sangren 1983; Liu 2003; Zhang 2020), 마조 신앙과 관광(Zhang 2021)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져 왔다. 동남아시아의 경우²⁾ 각 지역 화교 연구자들(李天錫 2008; 2009; 2010; 2011; 段玉石 2013)과 현지 연구자들(Phan Thi Hoa Ly and Tran Hanh Minh Phuong 2021; Nguyen Ngoc Tho 2018)이 중심이 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의 연구는 각 지역의 개별단위에 초점

2) 본문에서 살펴 볼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의 연구대상 범위는 대만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로 지정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련 마조 신앙에 대한 논저는 많은 배경으로 인해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만을 표기하였다.

이 맞추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 단위로 묶어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은 신앙 그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조사당과 마조신상을 중심으로 한 물질문화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고에서 마조 신앙이라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측면과 함께 미흡하지만 건축사적인 내용도 포함시켜 동남아시아 각국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동남아시아 마조사당을 포함한 마조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의 기원과 전파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II. 마조사당과 마조 신앙

마조낭낭 홈페이지에 소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마조를 모신 사당은 5천여 개소에 달한다고 한다.³⁾ 그 중 마조묘(媽祖廟) 혹은 마조 신상이 모셔진 회관이 분포한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그림 1).⁴⁾

지리적으로 중국과 영토를 접했던 베트남은 월남 또는 교지(交趾), 안남(安南)으로도 명명되었다. 10세기 북송대부터 중국인들은 베트남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하였는데 현재 80만 명이 넘는 화인이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광둥인들의 이주가 가장 많았던 배경으로 인해 마조 신앙은 자연스럽게 베트남으로 전파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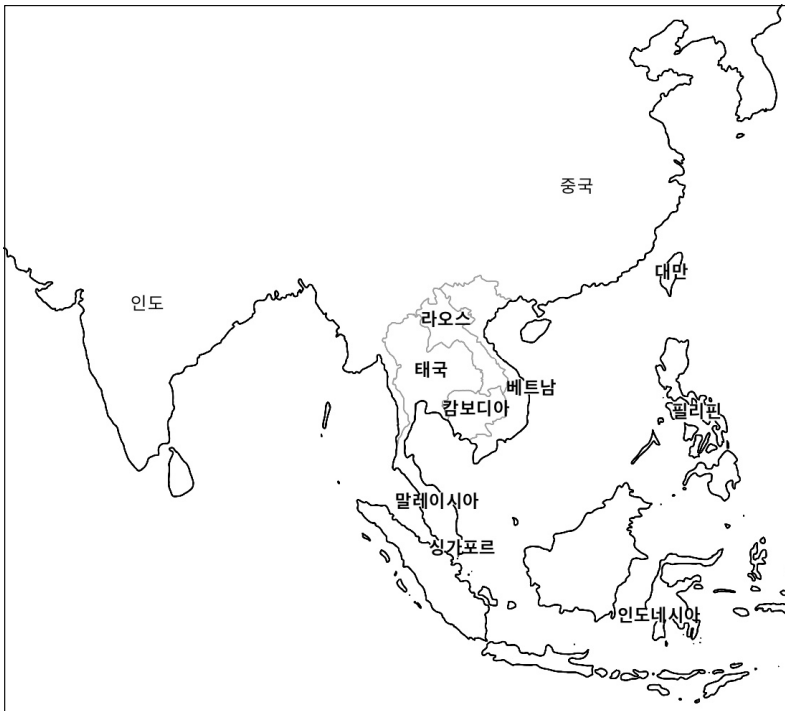
3) <http://www.mznn.com/mznn/mzmy/mzmy.html> 媽祖娘娘 홈페이지

4) 다만, 류큐왕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의 양상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원고에서 살펴볼 계획이므로 본고에서는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되었다.

호이안(Hoi An, 會安) 마조사당은 1640년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베트남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지만,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胡志明市) 수성회관(穗城會館) 티엔허우묘(天后廟)가 가장 유명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그림 2). 수성회관 티엔허우묘는 1760년 광동 화인들이 건립한 사당으로 정전(正殿)은 삼궁식(三宮式) 건축 구조를 보인다. 정전의 중간은 천후전(天后殿), 왼쪽은 관제전(關帝殿), 오른쪽은 재백성군전(財帛星君殿)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후전

〈그림 1〉 동남아시아 지도



출처: 필자 작성

〈그림 2〉 베트남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수성회관(穗城會館)
티엔허우묘(天后廟)



출처: 穗城學校 홈페이지(<https://sites.google.com/a/tuethanh.com/tuethanh/page2>)

건물 내부에는 광둥 사람들이 믿었던 7존 신령, 즉 용모낭낭(龍母娘娘)과 옥녀, 토지공신위(土地公神位), 천후성모와 옥녀, 금화낭낭과 옥녀상이 모셔져 있다(黎文景 2000, 6).

베트남의 마조묘는 명대부터 보편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온다(李天錫 2011, 1-7). 그런데 베트남의 마조묘는 마조신을 전문적으로 모셔 놓은 독립적인 건물(마조묘, 천비궁, 천후묘)보다는 회관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례가 더욱 많다. 베트남의 마조사당은 화인 회관과 마조사당이 하나가 된 건물이 많으며, 건물 내부에 마조 신상을 모셔 놓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광둥, 복건 출신 화인들이 많은 이유로 인해, 마조와 관련된 건축물과 마조 신상은 광둥, 복건 색채가 짙은 것이 특징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성회관 티엔허우묘의 건축적인 구조, 신앙, 벽화, 도자기, 시집(詩集)에서 중국적인 특징이 확인되며, 심지어 호이안 마조사당은 일부 건물의 부재가 중국에서 직접 운반되어 왔을 정도로 중국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렇지만 벽돌, 목제 지붕 등 베트남의 건축구조와 양식도 부분적으로 엿보이는 점은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Phan Thi Hoa Ly and Tran Hanh Minh Phuong 2021, 46).

이처럼 건축적인 면에서 베트남 마조사당은 중국과 베트남 현지 특징이 혼합되어 베트남만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마조 신앙에서도 확인된다. 베트남 마조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역 불교, 현지 종교와 서로 결합하여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Nguyen Ngoc Tho 2018, 46-50).

광둥인들은 베트남의 서쪽에 위치한 태국으로도 많이 이주하였다. 광둥 조주(潮洲)와 산두(汕頭) 사람들이 17세기 청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대규모로 태국행을 선택하였다(林明太·黃朝暉 2015, 5). 태국에 정착한 화인들의 출신지로는 광둥이 가장 많으나 복건, 해남에서 건너온 화인들도 있다. 태국 화인 중 광둥 출신자는 80%를 차지하며, 복건은 7%, 해남 출신은 5% 정도 점유한다(楊錫銘 2001, 4). 현재 태국에서 화인이 점유하는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이며(僑務委員會 2000, 1-17), 특히 1769~1782년 광둥 조주를 본적으로 두었던 정신(鄭信)은 태국 방콕에서 톤부리왕조(吞武里王朝, Thonburi Kingdom)를 건립하였기 때문에 태국에서 광둥인이 차지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추정케 한다.

이처럼 광둥 조주 사람들의 대규모 태국 이주는 고대 광둥지역에서 성행한 마조 신앙의 태국 유입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존하는 태국 마조사당 중 가장 이른 사례는 방콕에 위치한 현천상제묘(玄天上帝廟)로 이 사당은 청나라 1834년에 건립되었다(그림 3). 이외에도 성황묘(城隍廟)는 1846년, 산차오첻(치성마묘, 七星媽廟)

은 1851년 세워지는 등 청대 19세기 중후반에 건립된 마조사당은 12개소 정도가 알려져 있다(韓槐準 1941, 459-481). 그런데 12개 사당에 봉안된 신상은 일반적으로 마조가 주된 신으로 봉안되어 있지만, 간혹 기타 종교의 신을 보좌하는 신으로 모셔져 있는 사례도 있다.

태국은 불교를 신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각지에 불교 사원과 불교 신상이 많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태국 현지에 건립된 마조사당에는 불교 신상과 마조 신상이 함께 봉안된 사례들도 많다(巫秋玉 2008, 84-90; 李天錫 2008, 78-82). 예를 들면 1899년 건립된 보원당(普元堂)의 주된 예배대상은 미륵불상이지만 관음각(觀音閣)에는 관음보살과 함께 주생낭낭(注生娘娘), 천후성모(天后聖母)가 모셔져 있다. 또한 태국 현지 민간인들이 신봉하는 토지신 “속부왕야(屬府王爺)” 혹은 호랑이신이 마조상과 함께 봉안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상과 같이, 태국 화인들이 믿었던 마조 신앙은 불교 혹은 현지 민간신앙과 융합되어 하나가 된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태국 마조사당에는 마조 신상, 불교 신상, 태국 현지 신상이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하나로 혼재되어 안치되었다. 즉 중국과 태국 두 나라의 종교와 민간신앙이 하나의 사당에서 모두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태국 이외에 동남아시아 국가 중 광둥 출신 화인이 많은 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의 화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중 광둥 출신은 50% 이상이나 된다(조원일 2021, 199).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화인들이 모여 동향회를 하고 제사를 거행하는 대표적인 장소로는 1673년 건립된 말라카(Malaca)의 청훈텅(靑雲亭, Cheng Hoon Teng Temple)을 들 수 있다(그림 4). 이곳은 말레이시아 화인들의 만남의 장소임과 동시에 최초의 마조사당이 설치된 곳으로 청훈텅의 정전에는 관세음보살이 봉안되어 있고, 좌우 편전에는 마조와 관우가 모셔져 있다.

청운텅 이외에 말레이시아에는 1795년 건립된 보산텅(寶山亭, Boshan

Teng)과 1801년 호키엔회관(福建會館) 안에 텐혹궁(天福宮, Tian Hock Keng Temple)을 설치하여 마조 신앙을 봉안하였다. 오늘날 말레이시아 회관 내부에 마조사당이 마련된 곳으로는 모두 35개소로 알려져 있다(蔣維鈞 2006, 93: 王光海·高虹 2008, 85-86). 이처럼 말레이시아 마조사당은 마조 신앙을 단독으로 봉안한 독립된 마조묘가 아닌 회관 내부에 마조가 모셔진 사례가 월등하게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접한 싱가포르는 화인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화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정착한 화인은 광둥과 복건 출신이 많으며, 말레이시아의 상황과 유사하게 회관 안에 마조 신앙을 모셔 놓은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에는 50여 개소의 마조사당이 있으며, 호키엔회관(福建會館)에서 경영하는 텐혹궁(天福宮, Tian Hock Keng Temple)(그림 5)과 광둥 조주 사람이 건립한 웨하이청묘(粵海淸廟, Yueh Hai Ching Temple) 내부에 있는 텐후궁(天后宮)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싱가포르 마조사당 중 가장 명성이 나 있는 곳은 텐혹궁(天福宮)으로, 이 사당은 1821년 화인 선원이 창건한 이후, 1893년에는 화인들이 복건 천주에서 각종 건축 부재를 직접 운반해 와서 대대적으로 중건하였다고 전한다(林明太·黃朝暉 2015, 4). 특히 이 사당은 싱가포르 화인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중국 문화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이 건물은 싱가포르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도 이름이 드높다.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의 마조사당과 마조 신앙은 화인들의 정신적인 유산이며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화인은 광둥 출신이 많았다면 복건 출신 화인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복건성의 남쪽 바다에 위치하는 배경으로

〈그림 3〉 태국 방콕 현천상제묘(玄天上帝廟)



출처: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San_Chaopho_Suea_\(Sao_Chingcha\)](https://en.wikipedia.org/wiki/San_Chaopho_Suea_(Sao_Chingcha)))

〈그림4〉 말레이시아 첩훤텡(靑雲亭, Cheng Hoon Teng Temple)



출처: 첩훤텡 홈페이지(<http://chenghoontengtemple.com/en/>)

〈그림 5〉 싱가포르 텐훅궁(天福宮, Tian Hock Keng Temple)



출처: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Thian_Hock_Keng)

〈그림 6〉 필리핀 카이사사이(Caysasay) 성모 교회 성모 마리아상



출처: 2008 Caysasay Website
(<http://www.caysasay.com/Caysasay%20Home/storyOfCaysasay.html>)

인해, 일찍부터 복건 사람들이 이주하였다. 오늘날 필리핀 화인 중 80% 이상은 진강(晉江), 남안(南安), 천주(泉州) 등 복건이 고향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趙和曼 2000, 608).

복건은 마조가 태어나고 죽은 곳이며, 마조 신앙과 마조사당이 탄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역 사람들의 대규모적인 필리핀 이주는 마조 신앙의 자연스러운 전파를 시사한다. 이러한 추정을 반영이라도 하듯, 현존하는 필리핀 최초의 마조묘는 1572년 건립된 루손섬(Luzon) 바탕가스주(Batangas Province) 탈타운(Taal Town)에 있는 마초묘(天上聖母廟)이다.

1572년 복건 사람들은 마조신의 수호 아래 무사히 필리핀에 도착하였으며, 그들은 마조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마초묘(天上聖母廟)라는 마조사당을 이곳에 세웠다고 한다. 이후 마초묘는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陳衍德 1998, 229). 이를 통해 판단하면,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이른 시기 마조 신앙이 전래되었으며, 마조사당 역시 명대부터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리핀 마조 신앙과 마조 신앙은 특이한 현상이 한 가지 발견된다. 그 특징은 바탕가스주 탈타운에 있는 카이사사이(Caysasay) 성모 교회에 봉안된 20cm 높이의 작은 성모 마리아상에서 찾을 수 있다(그림 6). 이 마리아상은 1603년 필리핀의 어부가 발견하였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 신상을 천주교의 마리아상으로 생각하는데 비해 화인들은 마조로 모시고 제사 행사까지 거행하고 있다(李天錫 2010, 136-140).

그렇다면 하나의 신상을 두고 필리핀 현지인과 중국 화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궁금해진다. 사실 필리핀은 1571년 스페인의 침략으로 인해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스페인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믿도록 강요하였다. 당시 이곳에 거주한 화인들 역시 겉으로는 천주교를 받아들였으나 마음속으로

는 마조를 계속해서 믿고 있었다. 그 결과 필리핀 화인들은 천주교와 마조 신앙을 결합시켜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과 문화를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Aristotle 2014, 41-63).

필리핀의 마조 신앙은 천주교와 결합되었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결과 중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의 마조 신앙과는 다른 필리핀만의 마조 신앙이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필리핀 화인사회에서 마조 신앙은 천주교와 충돌하였거나 다른 종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융합과 현지화가 시도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발전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필리핀과 동일하게 복건 출신 화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인도네시아를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마조는 흔히 위대한 할머니(great-grand mother) 또는 위대한 조모(great ancestral mother)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마조는 그림으로도 많이 묘사되었으며, 천리안(Qianli Yan)과 순풍이(Shunfeng Er)라고 명명되는 두 장군상이 마조를 양측에서 보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Myra Sidharta 2014, 5).

명대 정화 원정을 통해 15세기 당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였던 중국 화인들의 존재는 파악될 수 있으나(미야자키 마사카쓰 1999, 158-161), 화인들에 의해 전파된 마조 신앙과 사당은 17세기에 이르러서야 확인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자바에서 마조사당이 발견되었으며, 대다수는 해안가 마을에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yra Sidharta 2014, 5-9).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는 1650년 건립된 킴텍예(金德院, Kim Tek le Temple)에 마조 신앙이 모셔져 있었다고 전하지만(그림 7), 2015년 발생한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 자카르타에는 1750년 건립된 텐후궁(天后宮)이 있는데, 이 사

〈그림 7〉 인도네시아 킴텍예(金德院, Kim Tek le Temple)



출처: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Kim_Tek_Ie_Temple)

당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마조사당이다. 1858, 1864, 1904, 1952년 등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쳤으며, 사당 이름 역시 여해신묘(女海神廟)로 변경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는 크고 작은 마조사당이 각지에 건립되었으며 최소 30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陳燕 2001, 34).

그런데 인도네시아 마조 신앙 역시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현지 신앙과 서로 융합하여 발전된 특징을 보인다(李天錫 2009, 64-68). 인도네시아 마조는 현지 신앙 대백공(大伯公)과 결합되었는데, 대백공은 토신, 천지창조한 불사신, 모든 천지신명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마조는 여대백공(女大伯公)으로 여자 신명이라는 뜻이다.

또한 동부 자바(East Java)지역 수라바야(Surabaya)의 마조사당 푸안궁(福安宮, Fuan Temple)에는 마조, 관우, 토지신과 함께 현지인들이

신봉하는 힌두교 두르가(Maa Durga) 여신도 봉안되어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마조 신앙은 화인들이 현지 종교와 융합시켜 마조사당에 이들 신앙을 같이 모시고 있는, 그야말로 지역적인 마조 신앙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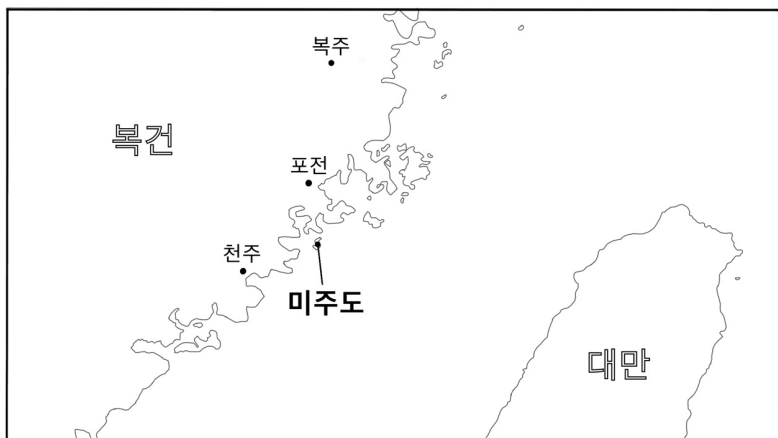
앞 장에서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은 화인들이 신봉한 민간신앙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나라들의 마조 신앙은 때로는 현지 종교와 융합하여 현지화하는 양상으로 변화·발전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지화된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의 기원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간단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동남아시아 화인들의 출신지가 광둥, 복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지역의 마조 신앙과 마조사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복건은 마조 신앙이 탄생한 기원지 중 기원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조 신앙의 마조신은 송대 복건에서 생존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마조의 본명은 임묵(林默)으로 960년 복건 미주도(湄洲島)에서 여자아이로 태어났다. 미주도는 포전시(莆田市)에서 동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섬이다(그림 8).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신통력이 있어 난파선을 구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등 각종 신이한 행적들을 보였다. 987년 28세에 그녀는 바다에서 조난 당한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죽었다고 전한다. 그녀는

〈그림 8〉 북건성 미주도(湄洲島) 위치



출처: 필자 작성

살아생전 어선과 상선의 안전항해를 도와주었고 병자를 낫게 한 행적으로 인해 사후 미주도 사람들로부터 해신으로 추앙되어 항해자들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과학적인 지식이 빈약하였던 과거 그녀에 대한 항해자들의 요구에 의해 마조 신앙은 탄생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북송대 미주도에서부터 시작된 마조 신앙은 인근 포전지방으로까지 퍼져 나가 집집마다 마조를 제사 지내고 향리마다 마조사당이 있었다고 기록이 전할 정도로 포전 일대에서 널리 성행하게 되었다. 북송대 미주도와 포전에 건립되었던 마조사당으로는 987년 건립된 미주조묘(湄洲祖廟, 그림 9)를 비롯하여 999년 평해(平海) 천후궁(天后宮)과 1157년 강구(江口) 천비묘(天妃廟)를 언급할 수 있다(李京圭 2010a, 229-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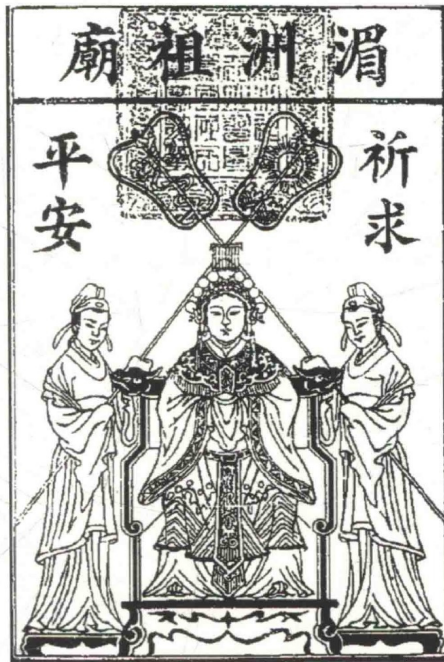
마조사당 중 가장 이른 시기 건립된 사례로서 유명한 미주도의 미주조묘는 987년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보수와 중건을 거듭하여

〈그림 9〉 미주조묘(湄洲祖廟)



출처: 媽祖娘娘 홈페이지(<http://www.mznn.com/mznn/mzmy/mzmy.html>)

〈그림 10〉 미주조묘 신부(神符) 마조



출처: 肖海明 2017, 45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중축선을 중심으로 배치된 전각들은 청대 17세기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미주조묘 건물군은 서축선과 남축선의 두 중축선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천후전(天后殿)은 침전으로도 명명되며, 미주조묘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으로 평가된다. 미주조묘와 관련된 마조 신앙으로는 청대 목판 인쇄본의 신부(神符) 마조상이 전한다. 마조가 머리에 쓴 봉관(鳳冠)과 좌우에 서서 부채를 들고 있는 시녀상은 당시 제작된 다른 마조상과 그 특징을 같이 한다(그림 10).

999년 건립된 포전 평해진 천후궁은 미주조묘에서 분령(分靈)된 행사(行祠)이며, 현존하는 건축물은 송대 궁전 건물의 배치방식인 “工”자형 배치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문을 들어서면 정원과 그 뒤쪽에 마조신을 모신 대전이 자리하고 있으며, 건물들은 18세기 중수를 거친 것들이다. 대전 안에는 마조 5존상과 임수부인(臨水夫人), 오제야(五帝爺), 정성공(鄭成功), 시랑(施琅)상이 봉안되어 있다. 오제야는 방위신이며 임수부인은 부녀와 아이를 보호하는 민간신, 정성공과 시랑은 명대 말~청대 초 대만을 정복한 군사가로 이들은 모두 복주, 천주 출신의 실존 인물들이다. 다시 말해 마조와 함께 모셔진 신들은 중국 전통신이거나 혹은 바다와 관련이 있거나 현지인들을 보호하였던 복건 출신 인물들이다.

북송대 마조 신앙이 미주도와 그 인근 포전 일대에서 성행하였다면 남송대에 이르게 되면 복건 천주(泉州)에도 마조묘가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마조 신앙은 복건을 벗어나 광둥, 절강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는데, 광둥지역으로는 1240년 이전 이미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혜련 2005, 166). 특히 남송대부터는 상인들이 마조 신앙을 만 들어서 항해하는 배에 싣고서 배에서 안전운항을 기도하는 일이 많았다(張桂林 1991, 32). 따라서 마조 신앙은 복건 상인들의 족적을 따라

여러 곳으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조 신앙 역시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원대에는 1261년 운하를 통한 조운이 실시되었으며, 강남의 물자들이 천진으로 모이게 되어 천진은 운수의 요충지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1278년 천진에 건립된 마조사당 천비궁을 시작으로 하여 천진은 북방 마조 신앙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고혜련 2010, 91-126). 그러나 원대에도 남방 해외 통상 항구는 천주가 중심이었던 배경으로 인해, 마조 신앙은 북견지역에서 여전히 성행하였다.

명청대 마조 신앙은 국가와 연해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민간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특히 명대에는 7차례 걸쳐 진행된 정화 원정을 통해 마조는 해양신으로서 더욱 신봉되었으며, 동남아시아로 확산되어 나갔다. 특히 명말 청초 정성공의 대만 정벌을 포함하여 청대 대만에서 반란이 발생하였을 당시 북견지역 군인들이 징벌되어 대만으로 갔다. 북견 군인들의 대만 정복 이후 북견지역의 마조 신앙은 빠른 속도로 대만으로 전파되었다(劉福鑄 2007, 186-187).

송, 원, 명대 남방 최대 항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천주(泉州)에는 천후궁(天后宮)이 존재하고 있다. 이 천후궁은 남송 1196년 건립되었기 때문에 건립시기가 이르면서도 규모 역시 웅장한 것으로 유명하다(그림 11). 남송대 천주에 천후궁이 건립된 이후에는 시박사 관원이 구일산(九日山)에 올라 성대한 관방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았으며, 마조제전으로 국가 제사를 대신할 정도로 마조 신앙은 이 지역에서 대단한 존재로 부상하였다(이경규 2010b, 105-116).

정화는 1409년, 1431년 출항 이전 황제의 어명을 받들어 미주도 미주조묘에서 직접 제사를 지낸 후 남해로 향해하였다(劉福鑄·王連弟 2006, 11-12). 또한 그는 1차 원정이 끝난 후 남경에 천비궁을 건립하였으며, 미주도의 미주조묘와 천주 천비궁을 중수하기도 하였다. 7차례

〈그림 11〉 천주 천후궁



출처: 홈페이지(http://www.qzthg.com/content/2018-09/05/content_5866724.htm)

원정 전후 정화는 복건지역의 미주도, 천주, 복주, 장낙 등지 마조사당에서 융성한 제사를 거행하였다. 그는 무슬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원 거리 항해의 안녕을 염원하기 위해 마조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명대 1472년부터 복건시박사(福建省舶司)가 천주에서 복주로 옮겨지면서 대외 무역항의 기능도 천주에서 복주로 변하게 되었다. 류큐왕국과의 사절왕래 등 복건 사람들의 대외활동은 복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명청대 상업이 발전된 항구도시에는 상인들이 회관을 건립하였으며, 이 회관 안에는 생업과 자손, 질병 등 만능신으로서 마조 신상이 모셔지게 되었다. 명대 이후 복건 상인들은 중국 현지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후원 아래 건립된 동향 회관 혹은 동업회관에 대부분 마조 신상을 봉안하였다. 다시 말해, 마조사당과 회관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건물체로 되는 구조를 이루었던 것이다(劉福鑄·王連弟 2006, 13-14).

복건과 인접한 광둥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 아니라 바닷길과 물길

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복건의 마조 신앙은 자연스럽게 광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 송대 복건 사람들은 광둥 특히 조주(潮州), 주강(珠江) 일대로 많이 이주하였으며, 멀리 해남까지도 거주하였기 때문에 마조 신앙은 광둥 전역에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송대 복건의 군인과 상인들이 광둥으로 많이 이주하였으며, 당시 쌀을 중심으로 한 많은 물자들이 복건에서부터 정기적으로 배를 통해 광둥으로 운반되었다(徐曉望 2007, 91-93). 광둥 사람들 역시 마조를 섬기는 것이 복건 사람들과 다를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고 전한다. 13세기 남송대 광둥 덕경(德慶), 남웅(南雄), 소관(韶關), 조주(潮州), 광주 등지에는 마조사당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王芳輝 2009, 16).

그러나 원대에 접어들면 마조 신앙이 열렬하였던 복건과는 달리 광둥은 광주 이외에는 마조사당이 많이 건립되지 못했다. 명대에 접어들면 광둥지역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곳이 되었지만, 왜구의 약탈이 빈번하였던 배경으로 인해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였다. 그들은 마조사당을 건립하고 중수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들였다. 또한 광둥을 다스린 행정관원들 역시 14세기에서부터 17세기 광주, 합포(合浦), 남오(南澳) 등지에 마조사당을 건립하거나 중수하는 데 엄청난 힘을 들였다.

명대 마조는 국가 차원에서 “聖妃”에서 “天妃”로 승격되었으며, 국가적인 제사 활동은 더욱 많아졌다. 광둥지역은 수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함에 있어 마조가 함께 한 전설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명대 광둥 사람들은 마조사당에서 단순하게 항해 안전만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방치안에도 그들의 열망을 담아 종교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대에는 심천, 홍콩, 동완(東莞)을 중심으로 마조사당에서 각종 활동이 이어졌다. 송대에서부터 명대 중반까지는 광둥 마조사당의 주된 후원세력은 문무관리 혹은 지방관원이었다. 그러나 명대 중반 이후부터 청대, 광주, 마카오, 불산(佛山)은 상업과 대외무역이 더욱 발전하였

다. 그 결과 부유한 상인들이 마조사당을 건립하는 사례들이 더욱 많아졌다(王芳輝 2009 23-35). 1408년 건립된 동완 해월암(海月岩) 천비묘(天妃廟)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광동 사람들은 불교, 도교 이외에 각종 민간신앙을 믿어왔다. 그 결과 마조사당에는 마조 신상을 모신 전각 이외에 다른 전각도 함께 설치하여 그들이 믿는 다른 신령을 모셨거나 혹은 마조 신상 좌우에 기타 다른 신상을 함께 모셔 놓기도 하였다(李慶新·羅燦英 2011, 1-8).

한 사례를 들자면, 영덕(英德)지방에서는 당대부터 우부인(虞夫人)⁵⁾이 항구를 보호하는 지방신으로 신봉되었으나, 명대에 접어들면서 마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명대에 건립된 남해 구강(九江)의 천후궁에는 마조 신상 이외에 명대 열녀로 칭송된 이침빙(李琛聘)의 부인 풍씨를 모셔 놓기도 하였다(王芳輝 2008, 104). 이처럼 광동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신봉한 민간 신령을 마조의 부속 존재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마조가 다른 신령에 속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1685년 청나라는 광동 광주, 복건 천주, 강소 송강(松江), 절강 영파를 대외 무역항으로 선포하였으며, 1757년에는 광주를 유일한 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蔣維鏞 1995, 45-63). 그 결과 광동은 항해와 관련하여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마조사당도 많이 건립되게 되었다. 청대 광동 상인들은 이 지역에 회관을 많이 건립하였으며, 회관 내부에 마조신을 봉안하였다. 다시 말해, 광동 상인들은 이 지역의 건축양식이 강하게 반영된 회관을 건립하였으며, 그 내부에는 마조 신상과 지역 민간 신상을 함께 모셨다. 이상과 같은 광동 스타일의 건축물과

5) 우부인은 당대 말기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여 그 폭도들이 광동 영덕지역으로 침입하였을 당시 우씨 부인은 갑옷을 입고서 그 형제와 마을 병사들을 친히 통솔하였다. 그녀는 전장에서 전사하였는데,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추모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기념하였다.

마조 신앙은 현지화된 특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지화라는 특징은 그들이 이주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출현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IV. 동남아시아로의 전파 양상

앞 장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마조 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화인들이며 이들의 출신지는 복건, 광둥이 많음을 밝혀냈다. 또한 복건은 마조 신앙의 탄생지이며 복건을 포함한 인근 광둥인들은 송대부터 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민간신앙으로서 가장 열렬하게 신봉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복건, 광둥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와 어떤 경로로 동남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중국 전통 신앙과 민간신앙 중 유독 마조 신앙을 새로운 정착지에서 믿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선적으로 동남아시아 화인들의 이주 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바다라는 매개체와도 연관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조 신앙의 전파양상에 대해 고찰하기에 앞서 화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이주의 일반론적인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망명이나 전쟁포로 등 정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陳碧笙, 1991, 6-9). 화인들의 해외 이주는 아주 분산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대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원인 역시 경제적인 요인이 70%에 이를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치

적 원인이 20%를 차지한다(陳達 1938, 48). 전 세계 화인 중 70%가 동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화인들의 출신지 즉 본적은 광둥과 복건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거주하는 화인들은 대부분 복건 출신의 사람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광둥 출신 사람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원일 2021, 199). 지리적으로 복건의 남쪽 바다를 가로지르면 가장 먼저 대만에 다다르며, 대만에서 다시 남쪽 바다로 나아가면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만난다. 또한 광둥에서 출발하여 서남쪽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와 연결된다(그림 1).

복건, 광둥은 지형이 좁아 인구 밀집도가 높았으며, 생산자원도 부족하여 바다로 나갈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許元振 2021, 135). 다시 말해, 그들은 어업과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고대에는 먼 거리 항해는 물론이고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배경으로 인해, 항해자들은 바다에서의 안전과 생업 발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복건, 광둥 사람들과 바다의 관계는 마조 신앙이 탄생하고 확산, 발전하는 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복건 사람들의 항해와 마조 신앙과의 밀착성은 987년 마조가 죽은 그해에 미주도에 마조사당이 건립되었던 사실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남송 1123년 노윤적(路允迪)이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로 갔을 때, 그가 탄 배에는 마조를 믿었던 복건 사람이 타고 있었던 이유로 인해, 그 배만이 무사하였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송대 복건 사람들의 마조 신앙과 원거리 항해와의 밀착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복건, 광둥을 중심으로 한 중국 사람들은 명대에 접어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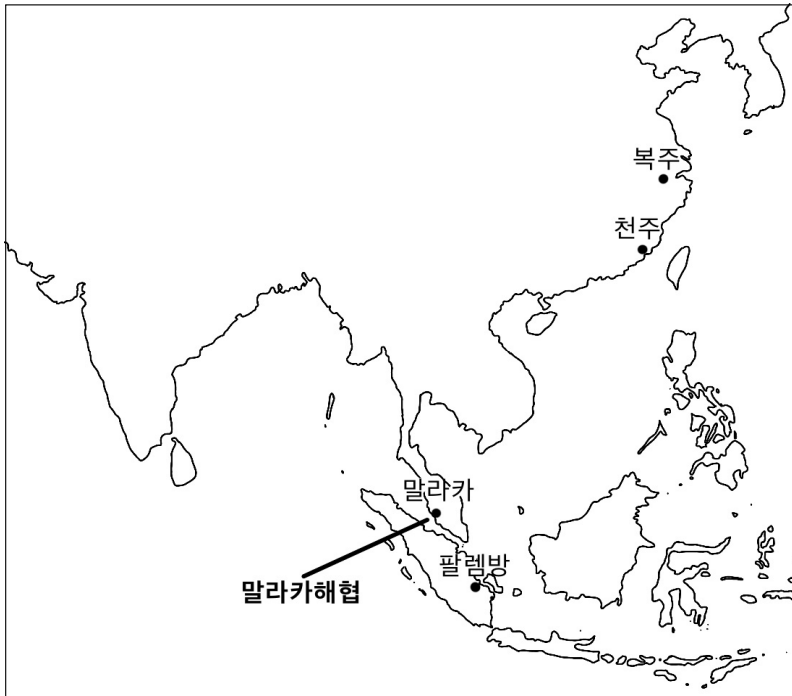
야 동남아시아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하였다. 그 주된 이유로는 15세기 전반 정화의 남해 원정과 16세기 복건지역 장주(漳州)를 중심으로 시행된 부분적인 해금정책의 철폐로 인한 대규모 밀무역을 거론할 수 있다. 명나라 제3대 황제 영락제는 중화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의 확립에 적극 나섰으며 정화를 남해에 파견하였다. 이슬람교도(색목인)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난 정화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28년 동안 7차례에 걸쳐 200여 척의 함대를 이끌고 각각 2만 7천여 명을 인솔하여 동남아시아, 인도 등 남해 원정을 단행하였다.

1405~1407년 제1차 항해에서 정화 함대는 특히 말라카해협에서 거점을 확립하였는데, 당시 말라카해협에 접한 수마트라섬의 항구 도시 팔렘방은 명초 해금정책 이후 밀무역에 종사한 중국 상인들의 거점지역이 되어 있었다(미야자키 마사카쓰 1999, 158-161)(그림 12). 이처럼 15세기 초 말라카해협, 즉 오늘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화인들이 상인으로서 동남아시아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정화함대가 방문한 자바섬에도 화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화 본인도 출항 전 마조사당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다수의 뱃사공은 복건의 천주, 장주지역 사람들로 마조를篤실히 믿었다고 한다. 정화 남해 원정 이후 복건 사람들의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팔렘방으로의 이주는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13, 167).

1567년 명나라는 복건지역 장주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해금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6~17세기 복건 사람들은 밀무역을 위해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대규모 이주를 단행하였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필리핀으로 이주한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인도네시아였다(李金明 2008, 79-80).

〈그림 12〉 천주, 복주, 말라카 해협, 말라카, 팔렘방 위치



출처: 필자 작성

또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인들이 동남아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중개인으로서 중국 상인들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동남아에서 활동한 화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특히 17세기 중반 명·청 교체 시기 중국의 혼란으로 광둥, 복건인들이 동남아시아로 대규모로 이주하였다(Nguyen Trong Long 2021, 528- 529).

그들은 인도네시아 자바와 말라카해협 일대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였으며, 대부분은 남성으로 교역과 무역에 종사하였다. 19세기 접어들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동남아시아로 식민지배를 확장함에 따라 그들을 따라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였다. 여성 이주자

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말레이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다(강희정 2013, 39-43).

청대 복진, 광둥 사람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동남아로 나아갈 때, 그들은 항해신 혹은 바다신으로서 마조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타고 간 배에 마조 신앙을 모셔 놓았다. 항해 도중 자연재해를 만나면 그들은 배에서 마조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였기에 마조 신앙은 뱃사람 혹은 이주민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조 신앙을 제작하여 항해하는 배에 봉안한 것은 남송대부터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張桂林 1991, 32). 이를 증명할 증거물로는 1975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원대 무역선에서 목제 보살상과 인장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을 마조 신앙과 마조 부적으로 간주하는 학자도 있다(金秋鵬 1999, 4).

화인들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항해 중 배에 모셨던 마조 신앙을 현지 사당 혹은 회관에 봉안하였거나 또는 현지 마조사당에 가서 안전 항해를 도와준 마조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와 같은 화인들의 마조 신앙 숭배방식은 마조 신앙이 동남아시아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이한 전파방식은 마조 신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종교는 선교사 혹은 성직자들의 이동과 포교 활동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파된 것에 반해 마조 신앙은 이주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특이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당과 회관에 모셔진 마조 신앙에게 화인들이 바라고 기도한 내용은 다소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의 안전항해를 위해 마조 신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이주지에서의 가정평화, 재택퇴치, 운수대통, 사업발전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지전능한 신을 원하였다(Phan Thi Hoa Ly and Tran Hanh Minh Phuong 2021, 63-64). 다시 말해, 이주지에서 마조신에게

바랬던 신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청대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화인들은 대다수가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었던 배경으로 인해, 그들은 이주지에 회관을 많이 건립하였다. 회관은 같은 고향 혹은 같은 工商業에 종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기구였다. 따라서 명청대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회관이 많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복건회관은 다른 회관과는 달리 마조 신앙을 모셨던 특징이 간파되고 있다(劉福鑄 2007, 187-188). 다시 말해 복건회관은 실질적으로 마조사당과 동일한 성격의 건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마조 신앙이 모여져 있는 동남아시아의 회관은 마조 신앙이 존재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화인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 우정을 나누고 결속력을 다졌다는 것이다(Zhang 2021, 15-19). 과거 마조사당에서 화인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중국 전통문화를 계속 유지 발전시켰다면, 오늘날은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화인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점(Stewart and Strathern 2009, 67-72)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V. 맺음말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은 화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왔으며,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합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해양 실크로드”라는 조건 아래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의 역사문화를 하나로 묶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처럼 마조 신앙은 단순히 중국 민간신앙의 하나로만 치부할 수 없는 존재이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화인들의 기층문화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연

구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남아시아 각국 마조 신앙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그 기원지와 전파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마조사당과 마조 신앙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남아시아 마조사당은 그 기능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사당과 회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자는 마조를 단독으로 모셔 놓은 건물이며, 후자는 마조와 상업적인 기능이 결합된 건물이다. 마조사당과 회관 건물은 중국 건축물의 구조와 양식을 기초로 하여 현지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는 복건·광둥 출신 화인들이 많았던 이유로 인해 복건·광둥 건축 스타일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부에 봉안된 신상은 마조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숭배한 현지 신상이 함께 봉안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국은 불교 신상, 토지신 속부왕야(屬府王爺), 호랑이신 등이 함께 봉안되었으며, 필리핀에서는 천주교와 마조 신앙이 결합된 양상을 확인하였다. 말레이시아 마조 신앙 역시 현지인들이 신봉했던 대백공(大伯公) 혹은 힌두교 여신 두르가(Maa Durga)와 서로 융합되어 발전해 갔다.

다음 장에서는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의 기원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필자는 동남아시아 화인들의 출신지가 복건·광둥이 절대다수라는 사실에 주목하였으며, 이 두 지역의 마조 신앙과 마조사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였다. 마조가 죽은 987년 그 해 미주조모라는 마조사당이 건립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송대에는 포전, 복주, 천주 등 복건 지역에는 마조 신앙이 확산되었다. 또한 마조 신앙은 불교, 방위신, 지역신 등 다른 종교, 민간신앙과도 서로 융합되어 마조사당에는 마조 신상과 함께 불교, 도교, 민간 신상이 동시에 봉안하기도 하였다.

복건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둥은 복건 사람들의 이주와 함께 마조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게 되었으며, 마조사당은 13세기 남송대부터 광둥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민간신앙이 발전한 광둥에서도 마조 신앙과 함께 민간신, 열녀상이 함께 사당에 봉안되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복건과 광둥은 마조 신앙의 탄생지이자 가장 열렬하게 신봉된 지역이며 동남아시아 마조 신앙의 기원지로 비정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동남아시아 화인들이 바다를 통해 이주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면서 이주의 원인과 구체적인 이주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업과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던 복건, 광둥 사람들은 명대 해금정책과 정화 원정으로 인해 동남아시아로 대규모 이주하였다. 그들은 고향에서부터 마조 신앙을 직접 배에 싣고 동남아시아로 갔을 정도로 바다 수호신이었던 마조를 열렬하게 믿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현지에서의 마조 신앙은 향해 안전신이라는 본연의 역할 보다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화인들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조 신앙을 통해 화인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에서 동남아시아 마조문화는 독특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현지 신앙, 문화와 서로 융합되고 변화, 발전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투 고 일: 2022년 01월 17일

심사완료일: 2022년 02월 08일

게재확정일: 2022년 02월 08일

참고문헌

- 강희정. 2013. “中國人の 南洋 移住와 近代 東南亞의 中國系 美術.” 『中國史研究』 83: 37-61.
- 고혜련. 2005. “東中國海의 媽祖信仰-天妃顯聖錄을 통해 본 마조 일화와 그 성격.” 『도서문화』 25: 161-199.
- _____. 2010. “天津 皇會 <行會圖>에 관한 一考察.” 『역사와 경계』 75: 91-126.
- 국립중앙박물관. 2013. 『싱가포르의 혼합문화 페라나칸』. 서울:국립중앙박물관.
- 미야자키 마사카쓰, 이규조 옮김. 1999. 『정하화의 남해 대원정』. 일빛.
- 李京圭. 2010a. “중국에서의 마조 신앙의 성립과 발전에 관하여.” 『중국사연구』 10: 225-255.
- 이경규. 2010b. “宋代 泉州의 번영과 媽祖信仰.” 『인문과학연구』 6: 105-116.
- 조원일. 2021. “화인의 동남아시아 이민과 정착에 관한 연구.” 『中國學論叢』 69: 187-20.
- 僑務委員會. 2000. 『全球華人經濟實力現況與展望研究計劃總結報告』. 臺北:環球經濟社.
- 金秋鵬. 1999. “泉州天后宮在媽祖信仰傳播中的作用.” 『媽祖研究』. 廈門大學出版社.
- 段玉石. 2013. “越南胡志明市潮州人的天后信仰.” 福建師範大學碩士論文.
- 巫秋玉. 2008. “論泰國華人社會中的媽祖信仰.” 『莆田學院學報』 15(4): 84-90.
- 徐曉望. 2007. 『媽祖信仰史研究』. 福州:海風出版社.
- 楊錫銘. 2001. 『潮人在泰國』. 香港:藝苑出版社.
- 黎文景. 2000. 『穗城會館天后廟』. 胡志明:穗城會館天后廟.
- 黎文景. 2000. 『穗城會館天后廟』. 胡志明:穗城會館天后廟.
- 王光海·高虹. 2008. “媽祖信仰與馬來西亞華人社會-文化認同的視覺.” 『

河南師範大學學報』35(4): 85-86.

王芳輝. 2009. “廣東媽祖信仰研究.” 中山大學博士論文.

王芳輝. 2008. “標準化與地方化-宋元以來廣東的媽祖信仰研究.” 『文化遺產』3: 98-105.

劉福鑄·王連弟. 2006. “論明代福建媽祖信仰的特征.” 『中國海洋大學學報』4: 10-15.

劉福鑄. 2007. “論清代福建媽祖信仰的興盛及其原因.” 『武漢科技大學學報』9(2): 186-190.

李慶新·羅燦英. 2011. “廣東媽祖信仰及其流變初探.” 『莆田學院學報』18(6): 1-8.

李金明. 2008. “早期福建的海外移民與媽祖信仰.” 『莆田學院學報』15(4): 79-80.

李天錫. 2008. “潮汕籍華僑與泰國華僑華人的媽祖信仰.” 『莆田學院學報』15(1): 78-82.

_____. 2009. “試析印度尼西亞華僑華人的媽祖信仰.” 『東南亞縱橫』6: 64-68.

_____. 2010. “試析菲律賓華僑華人的媽祖信仰.” 『宗教學研究』1: 136-140.

_____. 2011. “越南華僑華人媽祖信仰初探-以胡志明市穗城會館天后廟為重點.” 『莆田學院學報』18(1): 1-7.

李獻璋. 『媽祖信仰研究』. 澳門海事博物館出版. 1995.

林明太·黃朝暉. 2015. “媽祖文化在海上絲綢之路沿線國家的傳播與發展.” 『集美大學學報』18(4): 1-6.

張桂林. 1991. “試論媽祖信仰的起源·傳播及其特點.” 『史學月刊』4: 27-33.

蔣維鈺. 1995. “清代商幫會館與天后宮.” 『海交史研究』1: 45-63.

趙和曼. 2000. 『東南亞手冊』. 廣西人民出版社.

陳達. 1938. 『南洋華僑與閩粵社會』, 上海:常務印書館.

陳碧笙. 1991. 『世界華僑華人簡史』, 廈門:廈門大學出版社.

陳燕. 2001. “天后信俗在香港的傳播及其對海外的影響.” 暨南大學碩士論文.

陳衍德. 1998. 『現代中的傳說-菲律賓華人社會研究』. 廈門大學出版社.

- 肖海明. 2017. 『媽祖圖像研究』. 文物出版社.
- 韓槐準. 1941. “天后聖母與華僑南進.” 『南洋學報』2(2): 459-481.
- 許元振. 2021. “構建共同體:媽祖文化在東南亞華人社會中的獨特價值.” 『文化遺產』 2: 135-142.
- Aristotle, C. Dy. 2014. “The Virgin Mary as Mazu or Guanyin: The Syncretic Nature of Chinese Religion in the Philippines.” *Philippine Sociological Review* 62: 41-63.
- Liu Tik-sang. 2003. “A Nameless but Active Religion: An Anthropologist’s View of Local Religion in Hong Kong and Macau.” *The China Quarterly* 174: 373-394.
- Myra, Sidharta. 2014. “THE MAZU WORSHIP ON THE ISLAND OF JAVA.” *After Migration and Religious Affiliation*. World Scientific. 3-17.
- Nguyen, Ngoc Tho. 2018, “Buddhist factors in the cult of Tianhou in the Mekong River Delta, Vietnam.” *Scientific Journal of Tra Vinh University* 1(29): 38-52.
- Nguyen, Trong Long. 2021. “China And Vietnam Beliefs Fusion In Ho Chi Minh City, Vietnam.” *Multicultural Education* 7(6): 527-534.
- Phan, Thi Hoa Ly and Tran, Hanh Minh Phuong. 2021. “Mazu - The Chinese Sea Goddess Transforming into Mother Goddess in Vietnam Urban Areas - A Case Study at Mazu Temple in Pho Hien, Vietnam.” *SUVANNABHUMI* 13(2): 37-67.
- Sangren, P. Steven. 1983. “Female Gender in Chinese Religious Symbols: Kuan Yin, Ma Tsu, and the ‘Eternal Mother’.” *Women and Religion* 9(1): 4-25.
- Stewart, Pamela J. and Strathern, Andrew. 2009. “Growth of the Mazu complex in cross-straits contexts: (Taiwan, and Fujian Province,

China).” *Journal of Ritual Studies* 23(1): 67-72.

Watson, James L. 1985. “Standardizing the Gods: The Promotion of T'ien Hou ("Empress of Heaven") Along the South China Coast, 960 - 1960.” *Popular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92-324.

Zhang, Yanchao. 2020. “The Local Promotion of Mazu: The Intersection of Lineage, Textual Representation, Confucian Values, and Temples in Late Imperial China.” *Religions* 11(3). 1-28.

Zhang, Yanchao. 2021. “Transnational Religious Tourism in Modern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ult of Mazu.” *Religions* 12(3): 1-23.

<웹사이트>

<http://www.mznn.com/mznn/mzmy/mzmy.html>

<https://sites.google.com/a/tuethanh.com/tuethanh/page2>

<http://chenghoontengtemple.com/en/>

http://www.qzthg.com/content/2018-09/05/content_5866724.htm

<http://www.caysasay.com/Caysasay%20Home/storyOfCaysasay.html>

https://en.wikipedia.org/wiki/Kim_Tek_Ie_Temple

https://en.wikipedia.org/wiki/Thian_Hock_Keng

[https://en.wikipedia.org/wiki/San_Chaopho_Suea_\(Sao_Chingcha\)](https://en.wikipedia.org/wiki/San_Chaopho_Suea_(Sao_Chingcha))

Abstract

Origins and Spread of Mazuism in Southeast Asia

Eun Gyeong YANG

Dept. of Archae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Mazuism, or the worship of the Chinese sea goddess Mazu, was once a spiritual anchor for Chinese people who settled in Southeast Asia,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solidarity among them. It was not merely one of many folk religions that originated from China, but a very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about the underlying culture of the Chinese communities in Southeast Asia. In this study, the main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origins, diverse aspects, and propagation of Mazuism in Southeast Asia, a topic rarely handled among scholars studying the worship of Mazu in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The first chapter of the essay deals with various aspects of Mazuism and the shrines of Mazu in Southeast Asia. Studies show that the buildings used as shrines and assembly halls of Mazu worshipers are connected with the structure and style of the Chinese architecture of Guangdong and Fujian provinces in mainland China. According to a recent discovery, many of the Mazuist shrines across Southeast Asia were also devoted to local guardian deities, which suggests that Mazuism in Southeast Asia was originally a folk religion that prospered

among Chinese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but then changed and evolved through the process of localization based on a syncretization of some of the world's major religions and local popular beliefs.

In the second chapter, the main discussion focuses on the origins of Mazuism in Southeast Asia, revealing that the early Chinese communities that devoted themselves to the worship of Mazu and her shrines in this area originated from two provinces, Guangdong and Fujian, in mainland China. Fujian, the birthplace of Mazuism, and its neighboring province, Guangdong, were home to the most ardent worshippers of the sea goddess. As such, it is conjectured that Mazuism was introduced to and spread throughout Southeast Asia due to the inflow of Chinese immigrants from Fujian and Guangdong during the Ming and Qing periods.

The discussion in the final chapter focuses on the background to the large-scale migration of Chinese people from Fujian and Guangdong to Southeast Asi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itime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Mazuism. People of Fujian and Guangdong who were involved in fishing and trading began to worship Mazu as their sea guardian during the Northern Song period. In the subsequent Ming and Qing periods, the worship of Mazu became increasingly ardent and widespread among the Chinese migrating to Southeast Asia. These Chinese migrants believed that worship of the sea goddess helped them to navigate safely on the seas, and carried statues of Mazu with them when they sailed to Southeast Asia in an effort to uphold their faith. The study also shows that in some areas of Southeast Asia Mazu ultimately came to be worshiped not as a guardian goddess of seafarers

but as an all-powerful deity.

Keywords: Mazu, Southeast Asia, China, Overseas Chinese, Maritime, Silk Road

